

## “생명의 가치 우선하는 사회 만들자”

세월호 참사 100일...유가족·종단협 위령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인 7월 24일 하늘도 울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들을 위한 격려이자 생애같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달래는 위령제였다. 하늘은 오전부터 장맛비를 쏟아내며 세월호의 슬픔을 함께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이 주관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가 참사 발생 100일째인 지난 2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위령제에는 종단협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스님 등 회원 종단 대표들과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세월호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위령제는 아직까지 차디찬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놓지 않고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스님과 수륙재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천도재가 봉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합장한 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에 눈시울을 붉히는 유가족들과 짐통한 마음으로 눈을 감은 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위령제에 참석한 불자들이 역시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고인들을 추모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과 국민 다수가 납득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며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시스템을 갖추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생명의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도 위령제에 참석해 불교계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병권 위원장은 “총무원장 스님을 위시한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다.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며 “저희 가족들은 이 세상을 돈보다는 사람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총무원장 스님을 위시해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지난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위령제에 참석한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이같이 고마움을 표했다. 사진은 유가족들의 헌화 모습. 신재호 기자 ar501@bulgyo.com

## “묵묵히 자리를 지켜 감사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부상 소방관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3일 이화여대목동병원을 찾아 총무원장 취임 이후 매달 복지현장을 찾고 있는 자비나눔 방문의 일환. 이날 2층 투석실에 누워있는 김민하 소방대원을 만난 스님은 패유를 기원하는 난을 전달하고 손목에 단주를 채워줬다.

“어머니께서 어린 아기가 염주를 목에 걸고 태어나는 꿈을 꾸 후 저를 낳았다”는 김민하 대원은 이제 1살 된 딸을 둔 아빠. 특전사 출신으로 소방대원을 자원해 구조현장에서 활동해 오다가 지난 6월28일 “문이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옥상에서 4층 주방 창문으로 진입하다 지상으로 추락했다. 11m 높이에서 추락했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다. 은땀이 골절된 데다가 신장기능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3일 이대목동병원을 찾아 구조 활동 중 추락해 중상 입은 소방대원에게 합장주를 선물하며 패유를 기원했다. 김형주 기자

파손돼 한 달째 투석을 받고 있다. “헌신적인 소방대원들의 활동 덕분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국민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당신들이 자랑스럽다.” 총무원장 스님이 김 대원의 손

에 단주를 걸어주고 패유를 기원하며 손을 잡아 줬다. 담당의사는 “건 강한 체력이라 신장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병문안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김 대원이 소속된 강서소방서

를 예방, 강서소방서 권병용 서장의 안내로 소방업무에 대해 소개를 받은 뒤 금일봉을 전달하며 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군과 경찰, 소방은 국민들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다. 특히 소방대원들은 항상 긴장감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병용 서장은 “최근 소방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장비가 부족할 것보다 대원들의 사기 저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오늘 방문이 큰 격려가 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자비나눔 방문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이 동행했다.

안지수 기자 jsahn@bulgyo.com

### ‘전법제일’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사찰의 공로를 치하하고 불법홍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26회 포교대상 후보

자를 추천 공모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추천분야는 계층포교(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와 직능포교(군 경찰 직장직능 등), 문화체

육포교(미술 건축 음악 문학 학술연예 스포츠 등), 사회포교(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매체포교(방송 언론 출판 인터넷 등), 지역포교(신도교육 및 조직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며, 포교대상(종정사)과 공로상(총무원장상), 원력상(포교위원장상)

등으로 나눠 시상하게 된다. 포교대상 후보 추천자는 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오는 8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포교원 포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오는 11월중 시상식을 열고, 시상식 2주전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지원’

우수 사찰음식행사

### ‘선정’

사찰음식 특화사찰

사찰음식 대중화 및 전문화에 나선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수사찰음식행사와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찰을 선정, 지원에 나선다.

우수사찰음식행사 지원은 사찰음식을 주제로 문화예술,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행사 가운데 일반 대중의 인지도와 참여율이 높은 행사를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교구본사나 말사로, 지원금 대비 100% 이상의 자부담 금액을 행사 예산으로 투입 가능한 사찰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말까지다. 선정된 사찰에는 최대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8일까지며,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 또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찰음식 관련 행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언론 방송 자료나 홍보물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을 소재로 특화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사찰음식 특화사찰’을 선정한다. 사찰음식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인 이상 조리 교육시설과 전례 내려오는 사찰음식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 요리사 스님 및 실무자 전담인력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단, 올해 우수사찰음식행사 지원 사업에 응모한 사찰은 제외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된다. 신청서는 사찰음식 또는 종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사찰조감도 또는 가람배치도와 조리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8일까지다.

어현경 기자 eonkdo@bulgyo.com

### 지면안내

선학원 이사회

‘시유회 행보’ 계속... 3면

‘24시간 개방’ 팔공총림

동화시를 가다 10~11면



[아생여당]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시작 -

# 대한민국 여러분 템플스테이 하세요



**아아**  
아아(我我) 템플스테이 \_  
마음의 위로가 되어 평화로움을 경험합니다  
전북 김제 금산사, 총부 영동 반야사  
총부 보은 범주사, 경북 성주 심원사

**생생**  
생생(生生) 템플스테이 \_  
뭇 생명들의 늘 푸른 건강을 선사합니다  
경남 신창 대원사, 전남 영암 도갑사  
강원 동해 선화사, 경기 양평 용문사

**여여**  
여여(如如) 템플스테이 \_  
회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재안합니다  
전남 해남 미황사, 충남 예산 수덕사

**당당**  
당당(堂堂) 템플스테이 \_  
꿈을 찾아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강원 양양 낙산사, 강원 인제 백담사  
경기 용인 법원사